

서울대병원, 정신건강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개최

✎ 김현기 기자 | ㉠ 승인 2024.10.30 19:26

[의학신문·일간보사=김현기 기자]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보라매병원·서울의료원·서울적십자병원과 공동으로 '제2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'을 개최했다.



이번 교육의 주제는 '불안장애에 대한 통합적 접근-마음의 폭풍 다루기'로,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200여명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.

불안장애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, 연령 및 상황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

폭넓게 발생한다. 특히 최근 정신건강 현장에서 상담 및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접근과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는 중이다.

임재준 공공부원장은 "불안장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서울권역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향상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한편,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'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'의 일환으로 전문가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.



김현기 기자 khk@bosa.co.kr

저작권자 ©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